



▲글로벌외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브렌트 바이어스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 참서관(성김 대리 수상),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홍기화 대리수상),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 배석규 YTN 대표이사

우리학교, 내년에 환갑 개교 59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달 19일(금),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 있는 오바마홀에서 개교 59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개교기념식에서는 △김학태 기획조정처장 △이남주 이사장 △박철 총장 △권순환 총동문회장의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축사에서 박철 총장은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의 통폐합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QS주관 대학평가 현대어문학부문 34위 차지 등을 언급하며 우리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권순환 총동문회장은 “우리학교는 나라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지나왔다”며 “외국어 지식과 젊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우리학교를 만들어온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해 소감을 전했다.

축사 끝난 뒤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 △글로벌외대상 수여식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해 개교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외에 글로벌외대상이 새로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수상자를 선정한 발전협력팀은 “우리학교는 원래 매 해 이뤄진 개교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우리학교가 세계화의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기에 글로벌외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공로상을 수여하게 됐다”며 이 상을 수여하는 취지를 밝혔다.

글로벌외대상 수상자로는 △토마스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EU대사 △성김 주한 미국대사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배석규 YTN 대표이사 4명이 선정됐다.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는 우리학교가 EU센터를 개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다. 또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해 3월 우리학교에서 진행됐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우리학교에 도움을 줬 수상자의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외대상을 수여하면서 박 총장은 “우리학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4인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글로벌외대상을 드린다”고 말하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세계를 담은 운동장입니다”

서울배움터에서 2013 문화엑스포 열려



사진:이은기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요.” 이번 달 3일(금) 서울배움터 운동장에서 열린 문화엑스포에 참여한 일본 학생 소마 아야카(한국어문화교육원)양이 한복을 입고 한 말이다.

문화엑스포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하 한문원)과 국제교류처에서 주최한 행사로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총 47개국이 참여했다. 이 중 23개국이 부스를 차려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의 문화를 알렸으며 7개 나라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뽐내는 공연을 열어 행사에 흥미를 더했다.

소마 아야카양이 한복을 체험한 한국 부스에서는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는 한복 뿐 아니라 꿀떡과 식혜도 무료로 제공했다. 속색 꿀떡을 입에 문 카자흐스탄 여학생이 “처음 먹어보았어요. 이런 걸 말랑말랑하다고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처럼 다른 부스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각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렸다. 멕시코 부스에서는 멕시코 전통의상 ‘레보소’를 걸친 중국 여학생 증리(한문원)양이 멕시코어로 “사랑해요”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또 터키부스에서는 터키 전통 방식으로 한국차 당 50분 걸리는 커피를 제공했다. 각 부스에서 체험하는 음식과 옷은 모두 무료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조현우(동

양어·이란어 08군은 “외국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그 맛이 더 생생한 것 같아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부스 체험 외에도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연방 등 7개국 학생들이 참여해 △춤 △노래 △악기 연주로 꾸민 공연이 이어졌다. 몽골 학생 아미르(한문원)양은 활로 연주하는 몽골현악기 ‘호치르’를 수준급으로 연주해 베스트공연상을 받았다. 한편 러시아연방의 남학생 두 명은 윤도현의 ‘혈액형’이라는 곡을 어눌한 한국어로 불러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춤으로 2등상을 수상한 일본 교환학생 아베 준야(한문원)군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돼 걱정이 됐었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경원 대외부총장은 “이번 문화엑스포의 슬로건은 ‘세계의 문화 한 자리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운동장 안에 세계의 문화가 어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행사는 각 국가의 학생들이 국기를 들고 한 줄로 행진하는 퍼레이드와 함께 그 막을 내렸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우리학교 QS 대학평가 현대 어문학 분야 국내 3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3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랭킹'에서 우리학교가 현대 어문학 분야에서 국내 3위에 올랐다. 이는 서울대, 연세대의 다음이다. 또 영어영문학 분야도 지난 해 국내 6위에서 3위로 올라 종합점수 51.8을 기록했다.

한편 QS평가는 해당 주제별로 200여개의 대학을 △학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수 △H-index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 대학명 | 2013년 | | | |
|------|-------|------|------|---------|
| | 학계 | 졸업생 | 종합 | 순위 |
| 서울대 | 69.9 | 86.1 | 74.8 | 44 |
| 연세대 | 70.9 | 82.8 | 74.5 | 46 |
| 한국외대 | 65.1 | 87.5 | 71.8 | 51-100 |
| 고려대 | 61.8 | 83.4 | 68.3 | 51-100 |
| 이화여대 | 52.7 | 76.6 | 59.9 | 101-150 |
| 성균관대 | 54.5 | 80 | 62.2 | 101-150 |
| 서강대 | 52.5 | 79.9 | 60.7 | 101-150 |

▲QS대학평가 현대 어문학 분야 국내순위

지면안내

3 우리학교 재단 소송, 결과는?

4 단과대학 학생회칙, 관리는?

7 이제부터 알고 일하자

8 나홀로 성북 여행

12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종우



빈 의자

지속적 관심

▲최근 몇 주간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가장 화두가 된 단어는 갑과 을이었다. 비행기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왔던 승무원을 나무라는 모 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하청 대리점 직원에게 욕설을 남발하며 협박하는 모 유제품 회사영업직원의 이야기까지.

근 몇 주간은 SNS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얘기가 계기가 돼 우리사회에서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본 많은 사람들은 갑의 횡포에 분노했고 을이 처해있는 현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렇게 비뚤어진 갑을문화는 SNS가 발달되지 않은 예전부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을이라고 여겨지는 집단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을뿐더러, 설사 누군가에게 얘기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굉장히 낮았다. 기껏해야 그들은 친구 친척들을 비롯한 자기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만

을의 입장에서 어자신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토로했지, 지금처럼 얼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릴생각도, 아니 알릴수단도 없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SNS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갑을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하면 잊혀 질 수 있는 갑의 횡포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을이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넸다.

이렇듯 요즘 우리사회에서 SNS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실제로 SNS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의 문제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이슈가 되지만 금세 잊혀지는 않는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한창 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을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현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하는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한다.

▲앞서 말한 두 개의 기업들을 통해 본 우리사회의 잘못된 갑과을의 문제도, 당장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있지만 열기가 열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든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은 그만큼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반짝하는 일시적인 관심으로만은 부족하다.

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가시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 SNS가 진정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규원 부장

학내 브리핑

서울배움터 정기총회 미뤄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장 선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서 지난 달 30일 (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중앙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으로 김범(국제 11) 국제학부 학생회장을 선출했다. 감사위는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의 자치회비를 감사하는 기구다. 이번 해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김범군은 "그동안 학생회 단위별로 달랐던 예·결산안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몇몇 현실성 없는 조항들을 수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원 총학생회 산하기구 구성원이 모여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

착한 음주 캠페인 실시

이번 달 13일(월) 서울배움터에서 착한 음주 캠페인이 실시됐다. 캠페인은 봄 축제인 대동제 기간을 맞아 한국 음주문화연구원과 연계해 진행했다. 이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음주인식 및 음주태도 변화를 위해 실시됐다. 실시된 프로그램으로는 △알코올 자가진단 △음주문제 상담 △가상음주체험 △올바른 음주 정보제공 등이 있다.

자원봉사 동아리, 청년 봉사상에 주목해 보세요!

이번 달 24일(금)까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청년 봉사상을 포함해 △아산상 △사회봉사상 △재능나눔상 등 총 9개 부문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청년 봉사상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를 수상후보로 받으며, 총 5단체를 선발해 각 단체 당 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감동팀 홈페이지 (<http://www.hufs.ac.kr/user/student/>) 공지사항을 보면 된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생총회 날짜를 이번 달 8일(수)에서 22일(수)로 변경해 오바마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 총학에서 학생총회의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중 10분의 1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하지만 2011년 10월 26일(수) 비상총회가 성사된 이후 참석자 수 미달로 인해 약 1년 반 동안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달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대동제, 22일(수)에 새내기 울릉제가 진행돼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학생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조봉현(사범·영교09)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가장 효과

학생참여 유도 위해 내린 결정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정변경을 통해 학생총회가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생총회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재신임 투표 △도서관 시설 전면 교체 △학사정책에 대해 "신설 등의 안건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한대련 재신임 투표에 관한 안건은 총학이 한대련의 재신임을 받을 것인지 한대련을 탈퇴할 것인지,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이다. 이 안의 경우 학생들마다 한대련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가 달라 총학에서는 학생총회를 하기 전 미리 공청회 및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정보

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학사정책에고제 신설' 안건은 최근 자유전공학부 폐지와 중국어대학 및 일본어대학의 학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학기에 열리는 학생총회는 총학 학생회칙 제 13조 제 2항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시 후 학생회장단 선거가 있을 경우, 당선 후 4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에 따라 정기총회의 이름으로 이번 달 10일(금)까지만 소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회칙 상의 기한을 넘긴 이번 달

22일(수)에 열리는 학생총회는 비상총회의 이름으로 소집된다.

한편, 총학에서는 이번 학기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1학년 학생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학생총회 실천단을 발족했다. 학생총회 실천단은 이번 달 6일(월)부터 10일(금), 그리고 21일(화)과 22일(수)에 걸쳐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학 이동학생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실천단 UCC를 제작해 학생총회가 열린 뒤 오바마 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1) 학교에서 학사제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
양재성 기자 86haveari@hufs.ac.kr

우리학교 미얀마 양곤대학교 MOU 체결



▲박철 총장과 민톤 총장이 MOU 체결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미얀마 양곤대학교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 글로벌 시대로 나가는 걸음을 한발 더 내딛었다. 이번 달 3일(금),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우리대학과 양곤대학간의 MOU 체결식이 있었다. 우리학교 박철 총장과 민톤 양곤대학 총장은 MOU를 체결하며 앞으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학생 교환과 공동연구 추진 등 학술 연구 및 교육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진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장태엽 국제교류처장 △이병도 동남아연구소장이 배석했으며 양곤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대학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양곤대학과 MOU를 체결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양곤대학과의 특별한 인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강에서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26일(월) 우리대학에서의 특별연설 이후 11월 19일(월)에 양곤대학에서도 '변화의 빛'을 주제로 연설을 한 바 있다.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구 재단, 항소심서 패소

현 이사진 선임 적법 판결

지난 달 18일(목) 우리학교 전 재단이사 박승준 등 3명이 현 이사진 선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학교법인 동원영육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봤다. 또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 및 현 이사진 선임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 이소경 전 이사장의 처조카인 박승준 전 재단이사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고 직무대만으로 인한 학내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998년 7월 교육부에 의해 해임됐다.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우리학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해나가게 됐다. 그러던 중 임시 이사진이 2004년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박승준은 지난해 이에 대한 무효 소

송을 제기한 것이다.

윤재호 법원사무처 부장은 "1심에서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상지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를 따라 원고가 승소했던 것"이라며 "정식이사가 선임될 당시 사립학교법에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설립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이라 2심에서 판결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항소심에 이어 지난 달 30일(화) 구 재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4개월에서 6개월 후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염려는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달 19일(금) 개교 5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박철 총장은 "학교의 안정을 해치는 과거 세력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율성을 갖춘 외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외대의 시계 바늘은 결코 과거로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공학자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영어와 전공,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힘든 공학자들을 위해 IEEE와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네 가지 파트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세 가지 Level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IEEEExplore" 를 치거나, <http://english.ieee-elearning.org/> URL에 접속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운동장이 없어도 괜찮아!

이번 달 9일(목) 글로벌배움터의 화학과 생명공학과의 체전 피구경기가 있었다. 비가 오는 중에도 경기는 진행됐다. 이날 승리한 남수경(자연·화학 13) 양은 “빗속에서 하는 ‘수준전’이 벌써 2번째인데, 햇볕이 강한 날보다 오히려 편하다”며 주위 동료들과 함께 웃었다. 이어 주변에서는 남수경 양을 “팀 내 에이스”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 양은 “앞으로 우승까지 경기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서 피구만큼은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배움터의 체전인 ‘2013 CHAELUMS LEAGUE’가 이번 2일(목)부터 10일(목)까지 열린다. 경기는 △학내 소운동장에서 피구와 발야구 △학생회관 농구코트에서 농구 △모현 레스피아에서는 축구로 운동장을 나눠 진행된다. 글로벌배움터 대운동장의 경우 현재 신본관 건설 중으로 사용할 수 없어, 용인시 체육회의 관내 체육시설인 인조잔디 축구장 레스피아로 대체하게 됐다. 이를 위해 이번 34대 총학생회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학생복지처, 행정지원처 등과 의견을 조정했다.

지난 달 3일(수)에 있었던 2차 확대운



▲이번 6일(월)에 있던 태국어통번역학과와 화학과의 농구경기이다. 화학과의 에이스 선수가슛과 함께 몸도 날린다

영위원회에서 이번 체전의 진행 방식은 ‘기존 체전과 유사·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으로 가결됐다. 대운동장을 대체해 사용할 공간으로 학교 측에서 제시한 △광주시 오포 공설 운동장 △모현 레스피아 △용인시 종합운동장 중에서 모현 레스



▲이번 달 7일(화) 철학과와 사학과의 축구경기 이날 사학과의 1대0으로 승리했다.

피아가 채택됐다. 이후 지난 달 11일(금)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에 ‘학생 자치활동(체전) 보장 결의’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총학생회는 2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학교 측에 학생 자치활동의 성사를 위해 ‘모현 레스피아’의 대관을 요청했다. 하

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회신이 왔고, ‘단, 3일만 대관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말했다. 이후 지난 달 17일(수)과 18일(목) 두 차례의 중앙운영위원회의 비상회의를 거치

고, 이상엽 글로벌배움터 학생복지처장과 면담을 통해, 6일(월)부터 마지막 단체전인 16일(목)까지 대관을 보장받게 됐다.

축구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은 레스피아 사용기간 동안 연장 운행하는 교내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레스피아까지는 기존 노선인 외대 사거리를 지나 경안천을 건너 후 내리면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이번 체전에 대해 전형근 총학생회장은 “완전히 교내 밖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있어 학생들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유감”이라며 “약 2주간의 경기가 아무 사고가 없이, 의미 있는 자치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체전의 마지막 날인 10일(목) 단체전은 레스피아에서 진행되며 △합동제기차기 △계주달리기 △넙다리발기의 종목이 있다. 시상은 과별로 종합우승을 한 과에게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준우승을 한 과에게 3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3등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전해진다. 그 외 페어플레이 및 응원상으로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윤덕민 동문,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돼



▲윤덕민 동문

이번 달 3일(금) 우리학교 동문인 윤덕민(정치외교학 79)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제2대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됐다. 윤덕민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83년 우리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 안보통일연구부 부장 등을 지냈다. ‘위기의 한국안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등의 저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국립외교원은 지난 해 3월 설립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개발과 외교관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외교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초대 국립외교원장인 김병국 전 원장은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청와대는 윤덕민 교수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국립외교원이 출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외교 분야 전문가로서 최적임자로 생각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이현(사회·정의 12)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국립외교원장을 더불어 청와대 홍보수석에도 우리학교 동문이 임명됐다고 들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국립외교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좋은 자극이 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기숙사에서 즐기는 힐링 콘서트 ‘쉽’

이번 달 7일(화) 글로벌 배움터의 기숙사인 흡스름에서 ‘쉽 콘서트’가 있었다. 이 콘서트는 hufs강연페스티벌 단체인 두드림이 기획했으며 기숙사 사생회인 동거동락과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했다. ‘쉽 콘서트’는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휴식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한 콘서트다. 기타연주 동아리인 ‘외비가디’와 마술 동아리인 ‘일루전’의 공연이 있었고 퀴즈를 맞힌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개교 59주년 기념식 박철 총장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외대가족 여러분

해마다 갖는 행사이지만 이번 개교기념일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년 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고 김홍배 박사께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폐허가 된 땅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리, 평화, 창조”를 내세우며 다섯개 외국어 학과로 한국외대를 설립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외대는 국내 최고 글로벌대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시아 국가 대학 중에서도 명문 글로벌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외대생들은 재학 중 한번은 세계의 자매대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만 외대동문들의 터전도 글로벌 무대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든 외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2년 조선일보 QS 세계대학평가〉의 “현대어문학” 분야에서는 우리 외대는 세계 34위라는 놀라운 도약을 이루었으며 글로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평가한 “졸업생 평판도”에서도 세계 10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외대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대학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3월26일 미국의 현직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국의 대학에서 연설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외대를 세계인과 소통하는 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외대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에 미네르바 콤플렉스를, 글로벌캠퍼스에는 최신의 대형 기숙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캠퍼스에 건설 중인 사이버비대 건물도 7월 하순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캠퍼스에는 연간평 6,800평 규모의 신본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학 재학 8학기 중 최소 1개 학기는 해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7+1 파견학생제도〉를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작했으며,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 인턴십, 재외 한국문화원 인턴십,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인턴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획기적으로 진작하고 장려하기 위해 SC급 국제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와 해외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최근 괄목할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과 행정의 효율화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고등 교육 여건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예견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안정을 헤치는 과거 세력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교직원 스스로 자율성을 갖춘 외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한국외대가 향유하는 전통과 명성을 쌓아주신 모든 11만 동문 선배님, 학교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재단이사회 이사님, 밤낮으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는 교수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 선생님, 귀한 자녀를 맡기고 힘껏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외대 가족분들의 학교 사랑과 헌신에 늘 감동하며 든든함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열성과 화합, 헌신과 사랑이 우리 한국외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외대가족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박 철

완성되지 않은 선거세칙

일부 단과대학, 선거세칙에서 미흡함 드러나

지난 3월과 4월 서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와 몇 학생회 단위에서 재선거를 실시해 대표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재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대학을 비롯한 일부 단과대학에서 선거절차와 선거세칙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단과대학의 선거세칙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영어대학의 재선거 관련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다른 단과대학의 선거세칙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어대학, 재선거에 이은 재재선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영어대학은 지난 해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으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이번 해 3월 19일(화)부터 4월 5일(금)까지 영어대학에서는 영어대학 학생회장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유나(영어·영어 11)후보가 입후보해 총 투표율 44% 중 85%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강유나 후보가 당선된 뒤 영어대학 구성원 중 일부가 재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영어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성사되는 투표율(이하 성사투표율)은 50%였으나 투표 마지막 날 성사기준 투표율을 40%로 변경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영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시행하기 전 선거세칙을 검토할 당시 단선의 성사투표율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례를 찾아보던 중 50%의 투표율을 성사기준으로 정한 선례가 있었다는 전 영어대학 학생회장의 말에 따라 성사투표율을 50%로 잡았다. 하지만 선거를 진행하던 중 전 영어대학 학생회장이 선례에서의 성사투표율이 50%가 아닌 40%였다

고 정당하는 말을 남겨 성사기준 투표율을 정당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지난 달 19일(금)에 열렸던 영어대학 비상총회에서 재선거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이에 관해 영어대학 비상총회 도중 09년도에 영어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한 학생이 “08학년도에 이미 성사투표율이 50%에서 40%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하며 현재 선거세칙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영어대학 선관위는 07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선거세칙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선관위는 이번 달 1일(수) 열린 영어대학 정기 학생총회에서 선거세칙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영어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전부 잘못된 선거세칙에 근거해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07년도에 영어대학 학생회에서 상반기에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을 ‘재적인원 5분의 2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지

만 그 해 하반기에 학생회칙(이하 학칙)을 인수인계하면서 편집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개정된 학칙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후 개정된 학칙이 다시 게재되고 누락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유창호(영어·영어 11)영어학과 학생회장은 “학칙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던 시기가 08년도였기에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 인수인계과정에서 개정된 학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강유나 영어대학 학생회장은 “학칙의 공식적인 문서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전으로 설정됐다는 점, 개인의 발언이 학칙보다 상위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의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세칙의 문제, 영어대학에만 있지는 않아

영어대학 재선거에서 논란이 있던 뒤, 본지에서는 3월과 4월 재선거가 진행된

서울배움터의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선거세칙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일본어대학의 경우 선거세칙에서 성사투표율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오석진(일본·일본 12)일본어대학 학생회장은 “원래 일본어대학 선거세칙에 ‘학생회장 선거는 재적인원 50% 이상의 투표율 필요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전대 학생회에서 성사투표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어대학 학생회장 선거세칙에 성사투표율과 관련된 조항이 없게 돼 투표율에 관계없이 선거가 성사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오 일본어대학 학생회장은 “선거세칙상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래서 지금은 선관위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총학생회의 성사투표율을 따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칙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개정 준비 중인 단과대학은?

서양어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세칙을 학생회칙과 별개로 만들어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양어대학 학생회에서는 내부에 정책연구개발팀을 만들어 학칙을 연구하고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다. 부경민(서양어·포르투갈어 08)서양어대학 학생회 정책연구개발팀장은 “단과대학의 학칙보다 총학생회의 학칙이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총학생회의 학칙과 서양어대학의 학칙을 서로 비교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어대학과 법과대학도 별개의 선거세칙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총학생회 측은 자신들이 단과대학의 학칙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봉현(사범·영교 09)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중앙선관위와 단과대학의 선관위는 산하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단과대학의 학칙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모여 같이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다. 권소정(상경·국통 10)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단과대학의 미비한 학칙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각 단과대학의 학칙을 취합해 서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상 기자 86haveari@hufs.ac.kr



직업개발센터

상시 취업 상담하러 오세요

우리학교가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며 이번 달 1일(수)부터 2014년 2월 28일(금)까지(주)커리어넷 소속 전문 컨설턴트 3명이 △1:1 취업 상담 △입사서류·면접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특강 등)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대학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대학(경력개발센터) △민간전문 운영기관(주)커리어넷이 협력해 직업진로, 취업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서울배움터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제학사 1층 115호에서 상시 이뤄진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취업을 바로 앞둔 4학년뿐 아니라 학년 상관없이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

행한다. 이날 방문해 학생들의 취업상담을 진행한 양희선 취업전문컨설턴트는 “정보를 가진 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며 “우리는 적성검사를 제공하는 많은 채용사이트를 알려주고, 그 직업에 어떠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학교 학생들은 해외 영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컨설팅도 해외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입사지원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취업준비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또 입사지원서가 준비된 학생들에게는 롤플레이를 통한 모의 면접과 영어 작문,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날 컨설팅에 참여한 김병선(글영·경영 09)군은 “지금까지 입사 자기소개서를 혼자만의 힘으로 써왔는데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얻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게 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보윤·정가림 수습기자 87rackhamkj@hufs.ac.kr

“학생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박철 총장 학생들과 대화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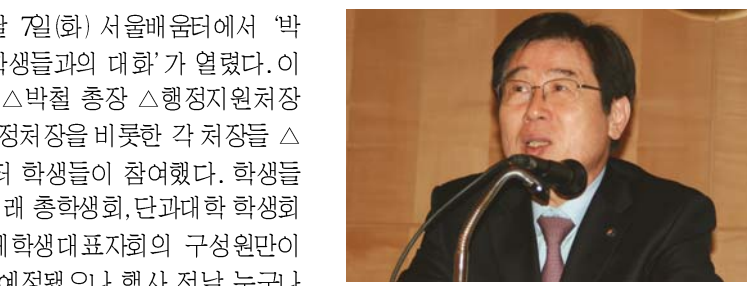


사진 안재환 기자

이번 달 7일(화) 서울배움터에서 ‘박철 총장 학생들과의 대화’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철 총장 △행정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을 비롯한 각 처장들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경우 원래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만이 참석기로 예정됐으나 행사 전날 누구나 참석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학생의 수는 약 300명이었다. 행사는 1시간 정도 박철 총장의 강연을 거쳐 학생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질의에 대한 응답은 총장과 각 분야 처장들이 함께 했다. 질문은 △도서관 시설 △송도배움터 △광역모집 △이중전공 △분·분교 통합 △비리재단 재판 △공군부족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 질의응답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도서관 시설 노후화에 대해 채명수 행정지원처장은 “이번 해에는 낡은 의자와 의자패드, 커튼을 교체할 예정”이라 말하며 “장기적으로 지하 도서관 건설도 생각 중”이라 덧붙였다. 이어 이원경(영어·영문 04)군이 “송도에 있는 우리학교 부지가 너무 좁다. 땅을 더 구입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고 묻자 박 총장은 “15000평을 225억에 사들였는데 우리학교에는 큰 돈”이라며 “그나마 현 시가의 1/10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다. 좀 더 사지 못해 유감이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우승(서양어·네덜란드어 09)서양어대학 학생회장이 “모집단위가 광역화되면 전공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7학기로 줄어든다. 전공수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계절학기 과목을 늘려 달라” 요구했고 박 총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중전공에 대해서는 조봉현(사범·영교 09)총학생회장이 “어학 전공자들이 상경계열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생겨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강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강의를 대안으로 생각 중”이라 답했다. 또한 “사이버외대에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한 대형 강의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부경민(서양어·포르투갈어 08)군이 “분·분교 통합이 이뤄졌는데 양 배움터 간 특성이 확실히 구분되는 게 맞냐”고 묻자 박 총장은 “중복되는 교과과정이 있었다면 교과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인하며 “글로벌은 실용학문, 서울은 어학에 지역학을 더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통합급진 추진 우려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의 정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앞으로 예정된 구재단과의 상고심에 대해서 “비리 재단 이사가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외대의 역사는 결코 거꾸로 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그는 “사이버 외대에 지하도서관까지 건설하면 5000평의 공간이 생긴다. 500명 수용의 강당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답을 던졌다. ‘박철 총장 학생들과의 대화’는 이번 달 15일(수) 오후 4시에 글로벌배움터 공학관 207호에서 이어진다. 임재윤 기자·주희진 수습기자 87heejinlee@hufs.ac.kr

외대학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외발추), 결국 사라져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논의 끝에 외발추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달 30일(화)에 열렸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외발추 해소를 논의한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 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외발추 해소의 안은 재적 인원 43명 중 △찬성 37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외발추를 해소하기로 한 이유는 외발추가 최근 몇 년 동안 총학생회 안에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47조 제 2항에 따르면, ‘성립요건에 근거하여 특정목적 가지고 활동하였을 경우 그 목적이 다했다고 여겨지면,

총학생회장이 그 기구의 해소를 전학대회에 상정하고 전학대회에서 해소를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외발추는 이전에 존재했던 재단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성립됐으나 이전 재단이 물러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문 △학사제도 연구 △학칙 개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지 않아 외발추는 그동안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김범(국제 11)국제학부 학생회장은 “지난 해 외발추에서 활동할 당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총학생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외발추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던 기관인 외발추가 해소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봉균(사회·정외 10)군은 “외발추가 학교에서 인정한 연구기관 만큼, 이 기관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외발추를 혁신하고 장기간동안 학내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해소가 결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외발추가 담당하던 업무는 총학생회가 맡게 되며, 특히 학칙 개정 연구의 업무는 총학생회 학칙개정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양재상 기자 86haveari@hufs.ac.kr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지난 8일 수는 어버이날이었다. 어릴 적 빨간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가 이 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선물하며 감사를 전한다. △영국 △미국 △그리스에서 비롯했다는 '어버이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날이 있을까?



▲사라 리스 벤투라 (Sara Lis Ventura), 이탈리아, 이탈리아 통번역학과 교수

이탈리아에도 어버이날이 있나요?

네, 이탈리아에도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버이날'로 합쳐져 있는데 이탈리아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고 아버지의 날은 3월 19일로 기억해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버이날, 즉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한국만큼 많이 유명하거나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아버지의 날보다 어머니의 날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에 무엇을 하나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날에 주로 부모님께 꽃을 선물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꽃은 없으나 주로 꽃다발을 선물해요. 요즘에는 노란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리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아 간단하게 꽃을 선물하거나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어머니의 날에 꽃다발을 선물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께 전화를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네요.

김민지 수습기자 87minji@hufs.ac.kr

멕시코에도 어버이날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날은 어떻게 보내나요?

네, 멕시코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각각 다른 날에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매년 5월 10일이고, 그 날에 주로 어머니께 장미를 선물해요. 아버지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아버지께는 주로 옷이나 향수를 선물해요. 어머니날이나 아버지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멕시코음식을 먹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립니다.

언제 부모님이 보고 싶나요?

저는 매년 7월마다 부모님을 뵈러 멕시코에 가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특히 아플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음식인 멕시코 음식을 먹을 때가 그리롭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늘 생각하고 있고 보고 싶어요. 빨리 뵙기를 바라요. 한국에서 선물 많이 사서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허규범 수습기자 87kennedy0412@hufs.ac.kr



▲레오 시에라 소레아 (Leo Sierra Sorea), 멕시코, 영어통번역학과 교환학생

에티오피아에는 어버이날이 있나요?

에티오피아에도 어버이날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어버이날은 정말 좋은 기념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고, 그런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주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애용씨는 고국에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나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가족들도 저에게 자주 선물을 보내요.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동생이 많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요. 가족이 보고 싶을 땐 전화를 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항상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요.

최소영 수습기자 87artist@hufs.ac.kr



▲에용 테카린(Eyob Tekalign), 에티오피아,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PHD program)

세계 브리핑

英, 케냐 독립운동 피해자에 배상하나



▲케냐 식민통치시절 영국은 약 30만 명의 케냐인을 강제 수용해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자행했으며, 약 3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정부가 1950년대 식민통치시절 케냐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 마우마우(Mau mau) 관련자들과 손해배상 협상을 시작했다. 배상 대상은 최대 1만 명에 이르며 총 배상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영국정부로서는 최초로 자국의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시도하는 사례기도 하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오던 영국정부가 이 같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최근 한 영국학자에 의해 마우마우와 관련된 탄압기록물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또한 마우마우 관련자들이 2009년부터 영국정부에 지속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기 때문에도 가능했던 결과다. 더불어 추가 배상 과정에서 영국정부에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예멘, 팔레스타인 등에서도 영국의 잔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총리, 헌법 개정에 “충분한 논의 필요” 말해

이번 달 5일(일)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반대 여론에 부딪힌 헌법 96조 개정에 관해 “국민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에 반대하는 공명당대표외도 의논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로, 국민투표를 발의하기 전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정권은 전쟁 포기과 군대 보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96조의 개정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아베는 등번호 96번이 달린 유니폼을 입고 시구식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스라엘, 잇따른 시리아 공습

이번 달 3일(금) 이스라엘은 시리아 미사일 무기로 알려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창고를 공습했다. 이를 뒤에는 인근 화학무기 연구소를 폭격하는 등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포함한 시리아인 4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에서 보유중인 이란제 무기가 정부군 측 세력인 헤즈볼라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폭격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에 대해 거센 비난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개입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리아 정부군 또한 자국민을 학살한 정황이 있으며, 시리아의 일부 반군이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와 연계돼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재훈 · 임수진 수습기자 87curious@hufs.ac.kr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Creative · Power MBA 2013 후기 신입생 모집

● 모집 과정

Creative MBA(주간) :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Power MBA(야간) : 경영학과

Power iMBA (온라인) : 국제금융학과

● 과정의 특징

- ▶ 한국외대출신 동문 장학금 (학부 성적 3.5이상, 재학 중 1회 100만원)
- ▶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는 CEO 및 경영전문가의 특강을 매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
- ▶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강
- ▶ 글로벌 CEO 해외과정 동문회초청 세미나(구글 본사, 동문기업 등 방문)
- ▶ SK네트웍스, CJ푸드빌, 세종문화회관 등과의 산학협동 수업
- ▶ 국내 · 외 CEO과정 동문과의 교류행사 등 막강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 ▶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초의 마케팅학과 개설
- ▶ 1:1 담임 교수제 (Academic Personal Advisor)
- ▶ 주, 야간, 온라인의 상호 보완적이며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 ▶ MBA 인재뱅크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 ▶ LA 한인 상공회의소 등 인턴십 프로그램

● 전형 일 정(일반전형)

[원서접수] 2013. 5. 30(목) ~ 6. 13(목)

[전형일] 2013. 6. 22(토) 14:00 - 17:00

[전형장소] 본교 서울캠퍼스 국제관(예정)

● 문의

Creative MBA(주간) : 02-2173-2399

Power MBA(야간) : 02-2173-2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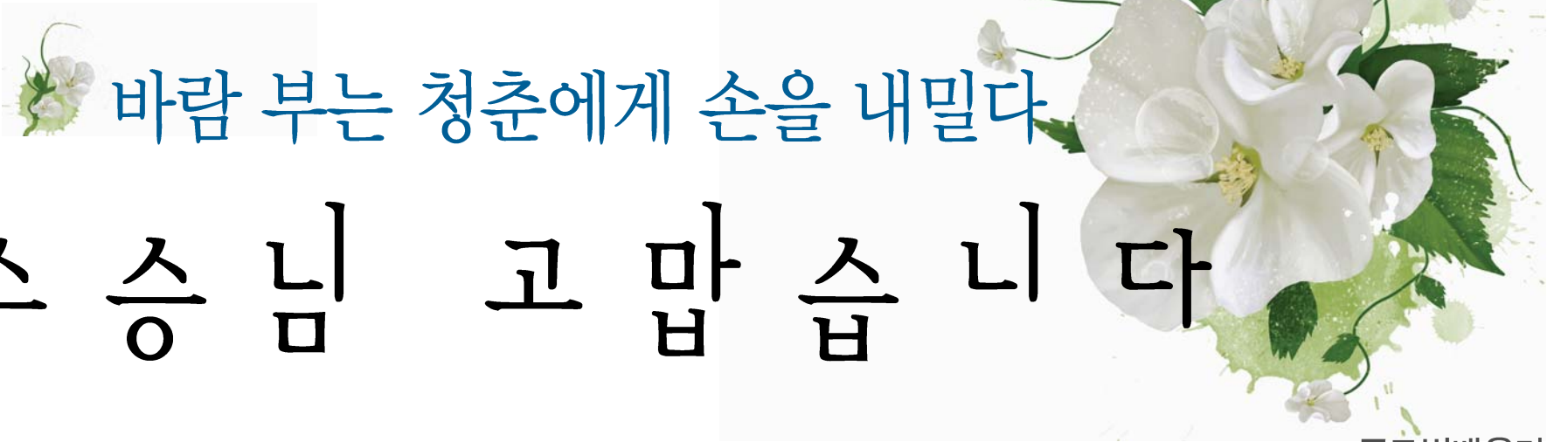
Power iMBA (온라인) : 02-725-0085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여러분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한국외대 Creative · Power MBA과정에서 만나보십시오”

<스승의 날 특집>



바람 부는 청춘에게 손을 내밀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서울배움터

글로벌배움터

넌 잘한다, 잘하는 학생이다. 타카코의 이찬희 선생님



▲"비 맞으시면 안돼요" 오른쪽의 타카토양이 이찬희 강사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이찬희 강사님은 저를 독특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카나자와 타카코(사범·한교 10양)이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강사님을 어려워하는 편인데, 저는 스스럼없이 다가온다고요." 그러나 타카코양

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이찬희 강사다. 한국말이 서툰 그녀에게 수업 도중에도 몇 번씩 "어렵지 않냐? 괜찮냐?"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녀가 KBS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도 "TV 잘 봤다"고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찬희 강사였다. 프로그램에서 타카코양은 "남자친구가 제 한국이름이 창피하다며 헤어지자 했어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 강사는 이에 대해 "네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며 타카코양보다 더 분개했다.

이 강사는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타카코양의 롤 모델이기도 하다.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한국어 수업에 자신이 없는 그녀에게 "넌 잘한다.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박수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제가 교사가 될 수 있을 까를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 정말 제가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타카코양은 이렇게 말하며 "저도 이찬희 강사님처럼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덧붙혔다. 4학년인 그녀는 지금 마음을 다 잡고 교사라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이찬희 강사님은 좌절이 많았던 저에게 희망을 준 스승님이예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신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신답니다." 타카코양이 전한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운의 꿈을 잃지 말아라 강군의 장지호 교수님



▲"간드러진 것이 나오나요" 왼쪽 장지호 교수와 오른쪽 강병웅군.

장지호 교수는 강병웅(사회·행정 08군)을 언제나 "강군"이라고 부른다. 강군이 장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학년 전공필수 수업에서였다. 전공필수라 멋모르고 들어온 수업에서 장교수는 종이를 한 장 내게 했다.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써야하는 종이였다. 강군은 재수를 해서 친구가 없는 외로움에 대해 썼다. 그러자 장 교수는 강군을 불러 "재수를 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것은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무슨 상

관이나.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강군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지내는 강군에게 "주말에 심심하지 않느냐"며 음반을 내밀었다. 장교수가 유학생활 동안 위안을 받았다는 말리의 음반이었다. 강군은 말리를 들으며 평평 울었다. 그때부터 장교수는 강군의 '스승님'이 됐다.

"저는 교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군은 '몸짱' 교수님을 따라 운동도 시작했다. 새내기 때 살찐 체형이었던 강군은 지난 해 미스터외대에 나갈 정도로 노력했다. "교수님은 밥을 안 드세요. 고구마만 드세요. 지금 40대 후반인데 화보까지 찍을 정도로 몸짱이시죠"라며 "이렇게 노력하는 교수님을 보며 더 젊은 제가 헤이해질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강군은 얼마 전 1학년 때 제출한 종이를 돌려받았다 한다. 꿈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던 강군의 마음을 읽은 듯 장 교수가 "강군, 넌 이런 사람이야"라며 돌려주었다. 덕분에 강군은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가는 중이다. "장간지 장지호 교수님,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군이 전한다.
원재윤 기자 86healing@hufs.ac.kr

날계란의 의미를 아시나요 수향양의 알폰소 교수님

"제 스페인어 선생님인 까를로스 알폰소 마시아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은 한마디로 톡톡 튀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죠." 구수향(통번역·스페인어 12양)의 말이다. 이 말대로 알폰소 교수는 독특한 일을 벌이길 좋아한다. "어느 날은 날계란을 가지고와 싸인을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보관하라고 하셨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알폰소 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귀찮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니 저에게는 교수님의 의도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수향양은 말했다.



▲알폰소 교수의 중급 스페인어 회화 수업 학생들. 선글라스를 낀 알폰소 교수 오른쪽 뒤 여학생이 구수향양이다.

알폰소 교수가 팔찌를 가지고 온 날도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팔찌를 나눠준 후 그 안쪽에 꿈을 적게 했다. 또한 바깥쪽에는 스페인어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새기게 했다. 그 후 매 수업시간마다 팔찌를 잘 차고있는지 확인하고, 바깥쪽 문구를 읽게 한다. "사실이 문구를 읽으면서 때면 큰 자극을 받는 않아요. 하지만 나타내준 순간 갑자기 이 문구가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라며 수향양은 팔찌의 효력에 대해 말

했다. 그녀는 "저는 이렇게 특별한 우리 교수님이 좋아요. 교수님을 좋아하니 스페인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알폰소 교수는 독창적인 수업방식뿐만 아니라 '훈훈'한 의미로 학생들을 때리시킨다. "170cm도 안 되는 작은 키지만 비율이 좋아서 예전에 모델 일도 하셨다 들었어요"라는 게 수향양의 증언이다. "멋있는 알폰소 교수님, 때 아모(사랑합니다)." 그녀는 전했다.

그래, 너의 생각이 맞아 수민양의 박진경 교수님

"교수님은 여성스러우세요." 이수민(통번역·이탈리아어 12양)이 박진경 교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외모도 가녀리신데 수줍음도 많으셔서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 여성스러움은 어떤 효과를 낼까. 수민양은 "정말 꼼꼼하세요.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 짚어 주시죠"라며 "또한 수업이 참 깔끔해요. 언어를 배우다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시죠"라고 덧붙혔다.



▲왼쪽은 박진경 교수, 오른쪽은 이수민 양. 마치 이모와 조카처럼 달고 다정한 모습이다

"교수님은 소통에 있어서도 세심함을 발휘하세요." 이수민양은 이어 말했다. 지난해 입학한 수민양은 박진경교수를 만나 1학기 때 이탈리아어에 푹 빠져 공부했다. "그러다 2학기가 됐는데, 제가 공부보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됐죠." 이런 수민양에게 박교수는 대뜸 "수민이 요즘 연애하니?"라고 물었다. "맞아요, 제가 그 때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민양은 말했다. 박교수는 그런 수민양에게 "연애하면 공부에 잠깐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과정이라 탄탄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며 "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것을 믿는다, 수민이는 잘하는 학생이니까"라고 말해주었다. 박교수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하는 교육자인 것이다.

"교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반수를 하겠다는 학생에게

도 박교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너의 길이 맞을 것이다"라고 조언해줬다. 수민양이 분지를 통해 전한다. "마치 요즘의 봄날씨처럼 따뜻한 교수님의 가르침은 평생 저에게 파장을 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고맙습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번 달 1일(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근처에서 비정규직 알바생 단체인 알바연대의 주제로 '알바도 노동자'라며 알바의 다양한 권리신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알바데이, 메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청년녹색당 △국민대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단체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각에서 출발해 명동 일대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도 진행했다. 퍼레이드에서는 박터프리기 등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당신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날은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5월 1일이 됐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유급휴일이다. 즉, 당일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150%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인 1일을 맞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이 알바생 9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바생 중 절반이 넘는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2%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 번째로 '업주로부터 따로 설명을 받지 않았다'가 55.9%였고, 뒤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도 무려 32.0%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또는 추가 수당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58.2%는 '유급휴일로 쉬어본 적 없다' 답했고, '추가 수당을 받은 적 없다'는 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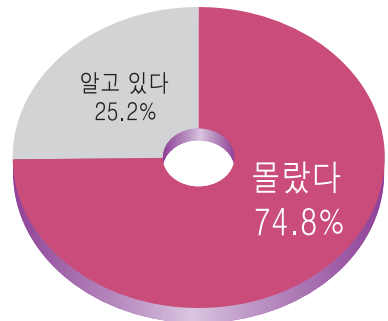
◆내 월급은 어디로... 언제 주시나요.

그렇다면 일하는 대학생은 어느 정도 될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분석해 지난 3월 내놓은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21.6%, 휴학생의 42.8%가 일하고 있었고 전문대생은 재학생 24.2%, 휴학생 57%가 취업 중이었다.

우리학교 학생은 어떤 알바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A군(신도림,21)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태원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했다. 첫 달의 월급은 2월에 지급됐다. 그래서 A군은 월급에 대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2월 월급이 한 달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4월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3월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군은 "알바를 그만 둔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전화하기도 귀찮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은 한두 명에 그치지 않았다. B양(안양,22)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여름방학 내내 약 6개월간 동물원 매표소에서 근무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서있었지만 쉬는 시간은 딱 30분"이라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원은 계절의 영향을 받다보니 손님이 줄어드는 때가 되니 문자로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마

·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요'라고 통보받고 해고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아 다른 동료들끼리 돌아가며 전화해서야 받을 수 있었다.

C양(수원,20)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했다. C양은 "프랜차이즈이니 최저시급은 보장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업주가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시급은 3800원이고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에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업주의 설명을 듣고 당연한 줄만 알았죠"라고 전했다.

◆우리학교 글로벌법률상담소를 찾아가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가 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인지 알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깝게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법률상담소를 찾아가다. 글로벌법률상담소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입구에 위치해 있다. 그 곳의 류문호 연구원은 먼저 "노동법이란 것이 무섭듯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 다른 것이 많다"며 경우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통 대학생들이 알바하게 되는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연근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등이다. 류 연구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음료수 자판기의 예를 들었다. "음료수 자판기를 청약의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온다는 일종의 계약 아래 이뤄진 것이죠."

류문호 연구원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 듣고 해석을 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A군에 대해서는 "임금의 4대 원칙 준수할 여건 것으로 A군은 밀린 월급에 대해 14%에 이자를 붙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원 매표소에서 일했던 B양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인 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므로 이자가 없다"며 "이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주로 점심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에 대해 "사

일하는 대학생 대학생은 근무 중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한 번 해보지 않은 대학생이 몇이나 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알바 경험담을 풀어놓는 공간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겼을까? 실상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우리들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학교 부설기관인 글로벌법률상담소와 더불어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을 찾아가 청년 알바에 실태 법률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반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일부 규정¹⁾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²⁾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여성 및 모성보호 관련 규정 중 일부(생리휴가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사업장 비치 및 보존 △휴게시간 및 휴일 부여의무 △임금의 4대 원칙³⁾ 준수 및 퇴직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해고 시 해고 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에 대한 의무를 진다. 류 연구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4대 보험 또한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급휴일의 경우도 4대 보험과 같다. 앞선 조사에서 32%의 알바생들이 몰랐던 근로계약서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임금

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쫓겨날 수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던 C양의 경우에는 "알바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이 하는 지불하는 것은 불허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류문호 연구원은 "모든 상황을 명시된 한 가지의 법조문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학생들이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도 있다. 바로 지난 2010년 3월 13일에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다.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은 청년(15~39세)이라면 고용형태(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 30일(화)에 6번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거쳐 전국단위의 '법내 노동조합'이 됐다. 한 위원장은 "법내 노동조합이 된 것은 꾸준히 추진해 오던 일"이라며 "이로써 법적 권한이 생기고 강화된 것이라 앞으로 더 실질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1기로 규정되는 설립 후 2년 동안 청년유니온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편의점 600여개를 조사해 주요 편의점의 66%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밝혔다. 이것을 노동청에 고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로 피자업체들의 30분배달제 제도를 폐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에 한 피자업체는 30분배달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등은 30분배달제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약식 체결 등에 나서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전국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을 조사해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⁴⁾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한 커피전문점 측과 교섭을 통해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103명의 알바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청년유니온의 이번 1일(수)에 있었던 '노동절은 1+1 데이' 행사 사진.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로 과자를 두류음해 상점들의 알바생에게 전달해줬다.

최근에는 법내 노조가 된 후 서울시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는 안을 제시해 교섭을 이뤘다. 이를 통해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도록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채용기관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취업 및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위하여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등의 '청년 취업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15개의 체결식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권은 일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아직은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은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큰 용기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요즘 알바생들도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태도를 돌아봐야한다"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각주>
- 1)해고에 관한 일부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정리해고,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감금의 제재
 - 2)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 : 법정근로시간 적용, 근로시간 계산 특례 등
 - 3)임금의 4대원칙 : 임금은 통화(通貨)로 통화(通貨)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全額)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日)를 정하여(정기) 지급하여야 한다.
 - 4)주휴수당 : 하루 8시간, 주 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한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
 - 5)청년일부고용제 : 매년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사진: 청년유니온 제공

수백 년 기억 담은 성북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새벽부터 들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 /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하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 성북동 주인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월간문학, 1968.11)

시인 김광섭이 쓴 '성북동 비둘기'의 일부다. 60년대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상실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은 명시로 알려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산업화하던 때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의 성북은 어떤 모습일까.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성북동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기에 지금도 서울 도보여행의 명소로 손꼽힌다. 위로는 북한산까지 걸쳐있는 서울성곽길이 뻗어있다. 성곽의 품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박물관인 간송미술관과 법정스님이 입적한 길상사가 안겨 있다.

요란한 술자리나 MT가 질렸다면 다양한 문화재와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성북동으로 훌쩍 떠나보자.

간송미술관, 국내 1호의 민간 박물관
성북동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명소는 간송미술관이다. 1966년 간송 전형필이 설립한 간송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민간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0여점의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훈민정음(국보 70호)과 고려청자인 청자상감운화문대병(국보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신윤복과 김홍도의 풍속화, 조선백자 등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국내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최완송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전형필은 일제시대 국내 문화재들이 도굴돼 일본으로 반출되는 현실에 대해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모으기 시작했다"며 "그의 고등학교 스승인 고희동과 독립운동가 오세창의 영향이 컸다"고 전했다.

국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간송미술관의 문화재적 가치는 크다. 특히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훈민정음은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을 풀이한 해례본으로 초기 한글의 원형을 간직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꼽힌다. 이 자료를 통해 학계는 한글의 형태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한글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형태를 띤 것이란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최 연구실장은 "간송미술관은 전형필의 조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열망이 집약된 결실이며 한국 문화재의 마지막 보루"라고 평가했다.

5월, 무료로 방문 가능해
이달 내 간송미술관을 방문할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특별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간송미술관은 5월과 10월 연간 2차례에 걸쳐 춘계, 추계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해 간송미술관의 춘계 전시는 지난 12일(일)부터 오는 20일(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말도 휴관일 없이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춘계 전시회의 주제는 '표암과 조선남종화과전'이다. 표암 강세황 탄생 30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강세황은 조선 후기 활약한 화가로 남종화파를 정착시킨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진경산수화의 발달과 풍속화·인물화의 유행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연구실장은 "강세황은 남종화파의 핵심적인 화가"며 "남종화파는 진경산수화와 풍속도가 유행했던 17세기부터 18세기의 화풍과 김정희로 대표



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의 추사파를 연결해주는 화풍"이라고 설명했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 70여 점을 선보인다. 강세황을 비롯해 남종화파의 전후시대를 포괄한 20여 명장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대중교통을 통해 간송미술관에 발걸음 한다면 성북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그곳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굳이 이정표를 찾지 않아도 길게 늘어진 입장대기 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간송미술관은 매 개장마다 대기시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최 연구실장은 "기대할 때 박물관 외부에 △석상 △석탑 △불상과 같은 문화재들과 내부 부지의 자연을 감상한다면 지루할 틈이 없다"

며 관송미술관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서울성곽, 옛 정취와 자연의 아름다움
간송미술관을 관람한 뒤, 조금 더 성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이에게는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성곽으로의 산책을 추천한다. 서울성곽길 중에서도 북동쪽에 속하는 이 지역은 한눈에 서울 성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서울성곽길 산책중 만나게 된 이한솔(경기도, 22)군은 "백악이라 일컫는 북한산과 인접한 만큼 성북 일대의 가옥 배치구조를 감상할 수 있다"며 "멀리는 백악의 험준한 고봉들까지 보인다"며 경치를 감탄했다. 이를 감상하면서 오르다 보면 군부대 입구를 접할 수 있다. 그곳이 정상이다. 정상에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백악-동궁-남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녹지축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성곽의 정상까지 올랐으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곳에서 뻗어나가서 갈 수 있는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올라온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서울성곽을 따라가면 그 길은 북한까지 이어진다. 오른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나가면 성북의 이른바 달동네와 부촌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개인주택 사이의 지나면 길이 나온다. 이 길을 통해서 '만해 한운은 심운당'으로 갈 수 있다.

법정과 추기경이 마주한 길상사에서
심운당을 뒤로한 채 큰 길로 내려와 반대편을 보면 덕수교회가 있다. 덕수교회를 지나 처음 여행을 시작한 성북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조선왕실이 누에를 찢던



선잠단지지가 있다. 물론 선잠단지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볼거리도 없다. 하지만 이곳을 이정표 삼아, 골목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대사관 집들을 감상하며 큰 길을 따라 걷다보면 법정스님의 길상사가 나온다.

길상사는 본래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고급 요정이었으나 요정의 주인이었던 고 김영한(1916 ~ 1999, 법명 길상화이) 건물을 시주하여 사찰로 탈바꿈하게 된 역사를 지녔다. 또 길상사는 법정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며 지금도 많은 승려들의 암자에서 도를 탐구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천주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화해 노력이 있는 곳이다. 이곳의 불상은 천주교 신부가 손수 만들어서 주었으며, 이곳의 석탑은 세 종교가 함께 만들었다.



이번 달은 부처님 오신날이 있는 만큼 연등행사가 진행 중이다. 길상사를 방문한 대학생 오호택(서울안암동 21)군은 "격정이 있는 여행이라면 이곳에서 명상으로 격정을 털어버리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길상사 방문이유를 "길상사는 단순한 종교공간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산책로이며 멀리서 온 여행객의 쉼터이다"고 말했다.

니를 발견하는 홀로 걷는 여행의 즐거움
아래 나열한 장소들뿐만 아니라 간송 일대의 성북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다. 성북구청박현정 중무관은 "언제든 성북구청에 연락하면 '성북구 여행수첩'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안에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행수첩에 있는 곳을 방문하면 증명 도장을 찍을 수 있어 기념으로 남길 수 있다.

성북에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 더욱이 이곳은 혼자 다니는 여행객이 많은 곳기에 나홀로 여행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완벽한 여행환경을 가지고 있는 성북에서 올 봄, 간송미술관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혼자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가끔은,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겨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즐거움이 아닐까.

이영호 수습기자 87leeyh@hufs.ac.kr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영화에서 회사를 그만 둔 회사 선배와 그가 스카웃했던 회사 후배(지형도)가 나누는 대화를 들여보자.



▲ 회사원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질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인정받는 것인가. 지금껏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한 많은 자기계발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다면 정작 사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회사원은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별 말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허튼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고, 무조건 버티서 퇴직금만 받고 나오면 그게 이기는 거라고 충고하는 선배의 말을 들어보자.

선배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지형도는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원이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한번도 실패한 적 없이 완벽하게 해낸다. 회사 대표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할 정도로 사사의 신임도 두터운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그는 말이 별로 없다. 회사 동료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기 어렵고,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 뿐이다. 어쩌면 질문하지 않는 타고난 능력 때문에 상사가 그를 신뢰하는지도 모르겠다.

취업의 꿈을 이루고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회사를 더 좋게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직장상사들은 신입사원들의 생각이 그저 '허튼 생각'일 뿐, 상대하기 피곤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묵묵히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독려한다. 하지만 이 또한 '허튼 소리'일 뿐, 조금이라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려 하면 회사에서 배척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별 말 없이 회사에서 버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운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갑과 을

그림을 펼쳤다. 산뜻하고 알록달록한 풍경을 한참 보고 있는데, 기자가 일하고 있는 슈퍼마켓으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꼬마남자 아이를 업고 포대기를 칭칭 동여 맨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니 좋아하는 붕어빵 사자"며 물고기 모양의 빵을 찾으셨다. 그런 빵은 없다 말솅드려니 "그럼 다른 거 뭐가 좋노"라고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몸이 아팠던 듯 아이의 손목엔 링거 자국이 보였다. 할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할머니랑 배영-배영-풀다가 니 좋아하는 거 보이면 가리키라"며 작은 가게 안을 느릿느릿 걸어 다니셨다. 할머니 등에 껌딱지처럼 붙은 채 과자를 잔뜩 고른 아이는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였다.



▲ 김덕기,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잠들다

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림 속 아이는 운전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아빠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든든한 아버지의 옆에 앉아 보는 세상에는 파스한 해와 산뜻한 나무가 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가 막고 있는 등 아래쪽 세상은 해님과 나무의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다.

다시 그림을 바라본다. 단순하게 표현된 자동차 안에는 아버지에게 안긴 아이가 있다. 그림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탄 아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타인의 차를 얻어 탄 어른의 경우 운전하는 사람을 신

그곳에선 아프다고 과자를 사주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업혀도 마냥 편안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 그곳에서 정밀로 마음 폭 놓고 있을 수 있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세상에 등을 대고 부모는 자식, 심지어 자식의 자식까지 업은 채 풍파를 막는다. 그런 부모 품에 안긴 자식은 무한한 편안함을 누린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불공평한 관계다. 아버지날은 있어도 '자녀의 날'이 없는 것은 그것이 새삼스럽기 때문이다. 문득 '효(孝)'라는 글자를 떠오른다. 그림과 달리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그 형상을 새기며 그림을 달는다.



재무금융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우리학교 국제경영학과 백재승 교수

지금세기는 통화전쟁 중

“요즘 외환시장의 경우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세계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통화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재승 교수의 말이다. 현재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본아베정부는 엔화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있다. 엔화가 많아져 일본의 통화가치는 낮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고 일본의 수출시장은 좋아진다. 자, 그림이 상황에서 통화를 많이 찍어내지 않는 나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일본의 통화가치가 낮아지면서 통화를 많이 찍어내지 않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진다. 때문에 그 나라의 제품은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G7이라고 불리는 선진국들은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내는 일본의 금융시장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미국과 유럽 등 G7국가들도 일본과 같은 금융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있습니다.” 백재승 교수는 말한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의 금융시장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회복기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인도 등의 신흥시장이다. G7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낮아지면서 신흥시장의 통화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신흥시장의 국가들은 G7국가들처럼 통화를 많이 찍어 낼 수 없다. G7국가들의 통화는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낮아져도 수요가 있지만, 신흥시장의 국가는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외국이든 △달러(\$) △유로(€) △엔(¥)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국의 원(元) △우리나라의 원(₩) △인도의 루피(Rupee)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국민 외에는 외부와의 경제활동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속되는 금융위기, 주목받는 재무금융학

최근 재무금융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금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제위기라고 부른다. △1985년 플라자 조약 △1990년대 남미 통화 위기 △1995 러시아 통화위기 △1996.1997년 아시아통화위기(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남미 통화위기 △2008년 미국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처럼 그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금융시장을 단순한 ‘돈 시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실물

경제가 금융위기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 재무금융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각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라며 백재승 교수는 자신의 연구분야를 설명했다.

불황기에 더욱 유리한 기업구조와 유리한 기업구조

2012년도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게재된 백재승 교수의 논문은 ‘경제상황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순환국면에서 어떤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보다 유리하게 평가되는가’를 연구한 논문이다. 백재승 교수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6개국 △라틴아메리카 4개국의 금융위기와 이후 회복시기를 대상으로 금융시장 침체에 어떤 기업구조가 유리한가, 그리고 이후 회복기에는 어떠한가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동남아시아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동일하게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가 낮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경우, 위기기간에 더욱 경영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위험도(risk)가 높은 기업 △비관련 다각화를 많이 수행한 기업도 금융위기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에 위기 이후 회복기에는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회복기에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회사의 50%를 소유하려면 50원(지배주주가 높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통제)이, 10%를 소유하려면 10원(지배주주가 낮은 지분을 가지고 통제)이 있어야 하고 이 둘의 차이는 40원이다. 이 차이는 위기 이후 회복기에 지배주주가 낮은 지분을 갖고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것을 보여준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40원의 지분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것보다, 40원을 잘 활용해 판매활동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또한 호황기에 좋은 이유는 자금을 많이 끌어와 생산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황일 때의 경우는 그 효과가 반전되어 나타나기에 위기기간에는 낮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기업의 경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

이어 백재승 교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이 상이한 영향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시장 침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자신의 효익을 높이려는 행동을 하려는 유인(expropriation)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비생산부문의 활동이 기업의 성과나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경제 불황 탓에 150만원밖에 못 벌게 됐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은 나머지 50만원을 보상받기 위해 회사의 복

사용자 등 회사의 자원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배주주도 불황기에 자신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일수록 그리고 경제가 불황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회사의 매출손실 등의 영향으로 회사의 가치가 50이 됐다고 하면, 시가시장의 평가에서 그 회사의 가치는 20으로 평가받는다. 30의 가치가 더 하락되어 나온 것이다. 백재승 교수는 이 논문에서 그 30의 체면을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지배구조의 기업가치 연계성을 면밀하게 살핀 것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금융시장, 쉽게 접근해보자

“사람들이 ‘금융시장’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100원을 잘 활용해서 110원을 만드는 활동을 금융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분야이고 중요한 학문이기도 하죠”라며 백재승 교수는 계속해서 재무금융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회사가 생산과 판매활동에서 10억의 이익이 났고, 그 10억을 벌기 위해 100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이 과정에서 100억을 가져오는 활동을 금융활동이라고 한다. 그 금융활동에서 어떤 기업은 10%의 이자가 났고, 어떤 기업은 자금을 잘 활용해서 5%의 이자가 불었다고 했을 때, 전자의 회사 이자는 10억, 후자의 회사 이자는 5억이 된다.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는데 이자가 10억이면 번 돈을 고스란히 모두 이자로 지급하는 반면, 금융활동을 잘해 우량한 자금을 갖고 온 회사는 5억만 이자로 지급하고 5억은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생산과 판매, 마케팅활동 외에 그 이면에는 금융활동이 혈액의 흐름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예를 들면, 머리는 기획과 조직, 손발은 마케팅, 손가락과 발가락은 회계, 전체 몸은 생산이라고 하면, 재무금융활동은 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무금융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판매 활동을 잘 해서 거둔 이익도 금융활동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이익을 모두 소진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효과적인 금융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백재승 교수는 “다음 해에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 국제금융학부가 생기는데, 학생들이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초빙한 특강을 많이 배치하고 외부에 있는 회사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며 “금융과 관련된 좋은 직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 1)기축통화: 금과 더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달러.
- 2)실물시장: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활동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

<백재승 교수의 논문 및 업적>

- “Do Controlling Shareholder’s Expropriation Incentives imply a link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the Aftermath of Kore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5, 2012.
- 【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증권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한국】
- 【2007년도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대만】
- “Business Groups and Tunneling: Evidence from Private Securities Offerings by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e 51, 2006.
- 【2004년도 아시아-태평양 재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미국】
- 【2007년도 아시아-태평양 재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한국】
-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1, 2004.
- “국제금융시장 자본조달과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국제경영학회, 국제경영연구, 2007.
- 【2008년도 한국국제경영학회 “국제경영연구” 최우수논문상, 한국】의 다수

<학술보도>

국제적 학술지 Signs and Society 출간, 인문학의 토양을 다지는 계기 마련

지난 달 25일(목) 우리대학 HK(인문학) 세미오시스 연구사업단이 국제저널 Signs and Society 창간호를 출간했다. Signs and Society는 기호학의 창시자 페르(Peirce)의 기호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오시스 개념을 적용해 만들어졌다. 또한 저널에서는 ‘광범위한 기호와 사회 간 문화생산 및 기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별호 외에 한 해에 두 번 발행되는 이 학술지는 open-access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저널이다.

Signs and Society는 △우리대학 HK 세미오시스 연구사업단 △미국 브랜디스 대학교(Brandeis University)의 인류학과 △브랜디스 대학교의 글로벌 스테디스 대학원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프로젝트이며 소유권은 우리대학이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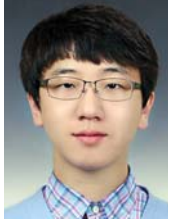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HK 세미오시스 연구사업단은 2010년 말 세계적 수준의 지식담론창출을 이념으로 국내외 어문학 연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연구교육방법론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이 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으며, 그 사업 중 하나가 국제학술지 분야다.

고경남 HK조교수는 “세미오시스 사업단이 세계적인 연구센터를 만드는 데 Signs and Society가 주축이 돼, 세계 인문사회과학자들의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외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우리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백기 HK 세미오시스 연구사업단장 겸 독일어 통번역학과 교수는 “아직은 시초에 불과하지만 세계적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양재상 기자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 2면에는 '서울배움터 학생총회 일자, 이번달 22일(수)로 변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날짜를 변경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사실, 총학생회의 이번 결정은 학생회칙(이하 학칙) 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학칙만 고려하자면, 이번 학기 학생총회를 열지 않고 비상총회만 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총회의 날짜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던 중운위원은 "최근 들어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든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운위원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이 안은 학칙상 무리가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총학생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0월 29일 열렸던 비상총회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에 동료 기자 중 한명이 '기사를 쓰면서 일반 학생들 몇 명을 취재했는데, 학생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 힘이 많이 빠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학기 본분교 통폐합이 학교에서 진행될 때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피력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음에도 여론이 분열되는 등의 문제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 본분교 통폐합이 논의될 당시 열렸던 서울배움터 비상총회는 전체구성원의 1/10인 800명에 미치지 못하는 604명이 참여해 무산됐다.

중대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사안에 대해 학교로 통일된 의견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총학생회가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 간다. 학칙 제10조를 보면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는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학교로 전달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생총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학생들의 의견을 통일하고, 그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려 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씩씩한 생각도 든다. 학생총회를 정기총회로 열지 않고 비상총회로 전환할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을까. 이번 서울배움터 학생총회는 22일(수) 오바마 홀에서 열린다. 이 회의가 성사돼 학생이 학교에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바란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비상총회가 아닌 정기총회의 이름으로도 학생총회가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문의 소리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 소장 양성필(영어 85)

필자는 85년 영어학과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후 89년에 복학해 92년에 졸업을 했다. 복학한 후 행정고시에 뜻을 두고, 89년 2학기에 행정고시준비반에 들어가 졸업하고 합격할 때까지 내내 그곳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보니 고시에 합격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에는 학교 측의 배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필자는 늘 외대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이유가 어땠든 스스로 외대를 선택했고, 외대를 다니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뤘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외대 출신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쪽으로

소수지만 강한 외대인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 측의 지원과 후광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고시반에 대한 지원은 타 학교보다 열악했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보 습득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불만·좌절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했던 것 같다. 다른 학교의 지원수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기도 했지만, 우리학교의 여건상 그 정도라도 감지덕지라 생각했다. 오히려 내가 합격함으로써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사회직으로 수석 합격해 고시계·고시연구 등 고시 잡지에 합격기가 게재되고 지상 간담회, 1년여에 걸친 공부방법론에 대한 기고 등을 통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위상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학교는 행정고시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의 수석합격은 고시준비생들 사이에 우리학교의 존재감을 알리고, 우리학교 학생들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근무를 자원했다. 고용노동부가 소위 힘있는 부처도 아니고, 일도 타 부처보다 많고 힘이 들지만 고용노동부를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스스로 선택한 조직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하기에 19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그동안 늘 외대 출신임을 밝혔고, 비록 소수지만 외대 출신은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고시출신 동문들은 소수지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우리학교 동문들의 특징은 필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직적인 파워는 될 하지만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 말이다. 아마 후배들도 외대를 선택한 이유가 다양할 것이다. 이왕 외대를 선택한 이상 외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의 꿈이 외대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시 정지

얼수도 식후경



이번 달 10일(목) 저녁 외대풍물패연행에서 이문동 상가의 복을 기원하는 상가(차신발)기를 벌였다. 이모녀떡볶이에 몰려든 풍물패 학생들이 먹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저녁마다 배고픈 이 순간 곳을 미치면 튀김을 먹을 수 있을까.

임재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지난호를 말한다 |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신민식(법·법 06)

외대학보, 외대인 모두의 아고라가 되기를

외대학보는 외대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대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독자로서 외대학보를 통해 외대인들과 마주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 외대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지난 호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CEO로 선정된 동문들의 활약상을 접하면서 많은 외대학보 독자들이 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도서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신동진 선생님의 훈훈한 기부 소식은 나눔의 참다운 의미를, 박진 석좌교수의 인터뷰는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도전 정신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보컬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했고 대다수의 단과대학이 학생대표를 선출했다는 소식, 또 글로벌배움터의 상반기 정기학생총회가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성사됐다는 소식은 외대인이라면 모두가 축하하고 반겨야 할 소식이다.

지난 호를 통해 외대학보 독자와 기쁨을 함께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외대학보 내에서 재학생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배움터의 도서관학생위원회 개선 문제와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개편 문제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두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관계자들의 입장뿐이었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심층기획에서도 재학생

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교 측에서 입시결과 상승과 이른바 학문의 통섭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측에서 재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재학생들이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교과과정 문제와 소속감 문제 등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대학보가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변경된 학교정책이나 자치체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대학보는 지난 958호에서는 대학언론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다루면서 극복방안으로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재학생의 여론 수렴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취재를 지향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언론의 위기가 재학생들의 구둑을 저하에서 비롯되었고, 또 대학언론은 재학생과 동문, 직원,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인만큼 앞으로 외대학보에 보다 많은 재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으면 한다. 외대학보는 자유언론·정론직필을 기조로 오랫동안 외대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이 아고라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처럼 외대학보 역시 외대인 모두의 아고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호를 말한다 |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이태준(자연·생명공학 09)

'빛 좋은 개살구'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난호 심층기획은 2014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부분적인 모집단위 광역화를 다뤘다. 우리학교의 달라지는 입학방법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전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략기획팀의 학칙 개정안에 따르면, 본·분교 통합승인 조건으로 국제지역대학에 한국학과가 20명 정원이 신설된다. 함께 신설되는 L&D 학부가 지난 2호에 걸쳐 언급됐지만 한국학과와 관련한 기사는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는 종종 동문특강이 진행된다. 학보는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2개의 동문특강을 보도했다. 근래 글로벌배움터에서도 두드림(DO DREAM)이라는 학생모임이 세계 공인 PPT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과 유익한 시간을 나눴다. 동문특강과 같이 형식적인 기사를 실는 것보다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만든 소중한 자리를 취재하고 보도한다면 더욱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58호에서 대학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보 스스로 실었으므로 믿고 독자위원회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매일 발행되지 않는 외대학보 특성 상 지난 날에 대한 기사보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관련취재 또는 개념과 용어정리 등과 같이 시의성과 무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외대학보가 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면의 신민지 기자가 쓴 취재 뒷이야기는 3면에 실린 '정기총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라는

점을 짚어줘 관련보도가 균형을 유지했다 생각되지만, 11면의 사실 지랑스러운 외대, 자랑스러운 외대인'은 꽤 불편했다. 내용은 학교를 찬양하고 특히, 이 공간은 지난 호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호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그 사실은 어떤 의도인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 지난 호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오타 △잘못된 피어쓰기 △중복되거나 빠진 표현 △흐름 상 적절치 않은 문장 등 발견한 것만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으로 1면의 '한국을 대표하는 CEO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PK)로 잘못 표기했다. 또한 4면의 양 배움터 2013년 상반기 단대총회의 2번째 단단에서 '듣고'를 '듣고'로 중복 표현했다. 학생이 만드는 신문이므로 몇 개의 실수는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명확히 틀린 것들이 수정되지 않고 발행된 데에 크게 실망했다. 이렇듯 소중한 지면에 오타와 잘못된 피어쓰기 같은 부분을 언급해야 하더니 속상하다.

나아가 지난호에서 다뤘던 대학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었던 외대학보가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여론을 주도해야 할 언론에서 오타와 같은 사소한 것에 혼란을 겪 제대로 된 내용을 못 보게 한다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삼겹살집에 된장찌개 먹으러 가지는 않는다. 신문의 기능에 충실하고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되는 960호를 기대한다.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글로벌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YWAM 멤버들

YWAM 모든 멤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석현이 방에서 글을 쓰는데 예전 신입생 때 신기숙사가 완공되어 좋아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대은행이나 성훈형이 제 방에 놀러 와서 라면이나 치킨을 사줬는데. 그리고 보성 전도여행에서의 Brothers Day, 작년 CFF에서의 막대한 양의 고기, 2012 MC에서의 감동과 2013년 4월 16일 캠퍼스 예배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나에 대한 파송 등 여러 추억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많고 제대로 QQ도 못해봤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휴가 때 틈틈이 교제 했으면 해요! 오늘 기도제목처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기를...충성!!!

From. 박정욱(인문·사학 11)



▲ YWAM 멤버들과의 기념촬영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친애하는 암실부장 이교은 양에게

애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기 총회 때 너의 연설을 듣고 실은 나도 엄청 감동했어. 그래서 적어도 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암실부장을 맡아준 것 정말 고마워. 회장과 암부가 제일 부딪히는 일 많으니까 의견이 충돌하고 싸움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서로 이해를 많이 해주고 믿어줘서 그런지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야. 내가 가끔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그럴 때마다 곁에서 이해와 격려를 해주는 네가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 잘해 온 만큼 남은 시간들도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한 그루의 유칼립투스가 되고 싶은 회장이.^

From. 류철민(상경·국통 10)



▲ 받는 사람 경영대 경영학과 이교은양

◆외대공감 - 스티커를 붙여라!

이번 960호 외대공감에서는 이번 달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우리학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러지 맙시다, 학내 가장 꼴불견은?>이라는 주제로 학내에서 자제했으면 하는 행동들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 솔직담백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설문결과, 양배움터 학생들 모두 학내 최악의 꼴불견으로 보행 흡연자를 꼽았습니다.



1위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걸어서 다니면서 담배 피는 너



2위 아무리 좋지만 지나친 애정행각은 좀...



3위 글로벌배움터 - 늦었냐, 나도 늦었다. 터질 것 같은 빵차 비집고 들어오는 너
서울배움터 - 밥 먹으러 여기까지오? K대생들--



4위 열라빌, 주인없는 짐만 하루종일...~

다음 주제는 <축제라서 이견 싫어>라는 주제로 이번 달 10일(목)부터 일주일간 서울배움터에서는 국제학사 1층 및 인문과학관 학생식당에서, 글로벌배움터는 승차장 및 본관 1층 현관 두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민지·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사설

자랑스러운 외대, 자랑스러운 외대인

우리학교 동문 4명이 '2013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에 선정된 것은 외국어 교육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인 우리학교의 높은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의 CEO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30명, 고려대 18명, 연세대 12명, 성균관대 6명, 해외대학 6명, 그 뒤를 이어 우리학교가 4명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학교의 위치가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선정된 CEO들의 학부 전공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대의 경우 공대(14명)와 상대(7명)를 제외하면 기타 전공 9명이었고, 고려대는 상대(11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7명이었고, 연세대는 상대(8명)와 공대(3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1명, 성균관대도 상대(3명)와 공대(1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2명, 해외대학도 상대(3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3명이었다. 반면, 우리학교 출신 CEO 4명은 김기범(경의 75), 신은철(독일어 68), 윤용모(영어 74), 조준희(중국어 74) 동문으로 전원 기타전공이었다. 기타 전공만 놓고 본다면 우리학교는 성균관대, 해외대학, 고려대를 모두 제치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국내 3위의 글로벌 CEO양성 대학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이 때문에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도 2012년 3월 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외대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 외교관, 경제인 등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라는 현대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국민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 경제 대국으로, 권위주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내향적 국가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로, 한 마디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라고 극찬한 것이다.

우리학교 교육 과정의 핵심은 외국어와 실용 학문을 접목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2014년 신설되는 LD(Language and Diplomacy) 학부도 언어와 정치, 외교를 접목시켜 학교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외대는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외대에서 가르치는 교수, 배우는 학생, 행정 직원 모두 외대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외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일하는 대학생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20-30대를 일컬어 '삼포(三抛)세대'라 말한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중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는 지난 해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의 특별취재팀이 만든 신조어다.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동시에 취재팀은 이 세대의 원인을 불안정한 일자리와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꼽았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연애도, 평생을 같이 할 가정을 꾸리는 결혼도, 그 행복을 전해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이 지금의 청년이라고 한다.

사실 현재의 행복을 잠시 미뤄두고 어딘가에 매진해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행복이란 나를 나만큼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상을 말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가정의 날을 맞더라도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며 기대어 안정을 누릴 수만은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이 보였다. 이번 7면에 실린 '일하는 대학생' 이야기에 그 실상이 나온다. 일하는 대학생도 삼포세대에 속하는 바로 우리네 이야기였다. 사실 이 기사의 시작은 이번 달에 수많은 기념일 중에서 한 가지 특별한 날인 근로자의 날로부터 비롯됐다. 취재를 할수록 대학생들은 학점관리 스펙준비와 더불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른바 쓰리고(three 苦)인 셈이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대학생은 결국 세 가지를 포기한다. 결국 행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율타린 가정 속에 속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는데 지치고 바쁜 청년들이 오늘도 바빠 움직이고 있다. 가정에 달이 무색하리만큼 요즘 젊은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율타린 가족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같은 청년들이 나를 바라본다. 그 근본에서 오늘 위로 받아보면 어떨까.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윤 부장 홍규원

차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운

수습 김민지 김채훈 서보윤 이영호 임수진

정가림 주희진 최소영 허규범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미디어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모난 눈에 오지를 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종우를 찍다

박종우의 사진은 자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대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강렬하게 볼 주관이 박종우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주관과 객관이 박종우의 내부에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평정된 시선으로 자연스러운 영상을 거둬들인다. 그런 사진들은 강요하지 않으면서 수월하게 우리를 멀리로 데리고 간다. 고맙다
-강운구 사진작가

박종우 사진작가가 지금까지 단 한 권 발간한 사진집인 《히말라야, 20년의 오디세이》의 서문에 동료이자 저명한 사진작가인 강운구 작가가 남긴 말이다. 《차마고도, 1000일의 기록》, 《사형지표》, 《바다집사》 등 대작을 찍어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종우. 그는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아시아를 테마로 다루는 전문 매체 '온아시A'와 한국의 '니콘 리얼리티 리더스 클럽'에 소속돼 있으며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독립 프로덕션 'INDIVISION'을 운영하는 등 사진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다소 생소하다. 말 그대로 기록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인가.

일반 독자들이 직접 가서 보기 어려운 것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남들이 가지 못한 곳에 가서 기록을 하고 소개함은 물론 후세에 남기는 역할을 한다. 자연, 한 사회의 현실, 생활상 등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사진 분야다. 사람 사는 전체적인 것이 다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스트레이트 사진'이라고 한다.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기 때문이다.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기자생활도 오래했다. 뉴욕타임즈와 LA타임스에서 4년, 한국일보에서 11년 간 사진기자로 활동했는데 저널리스트에서 다큐멘터리스트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뭔가.

저널리즘 사진을 찍다보니 아쉬웠다. 요즘은 피쳐물이라고 기획적인 사진을 많이 찍지만 80년대에는 사건사진만 찍었다. 그렇다보니 일년 내내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신문의 정치면은 매번 일정한 사진만 써서 예를 들면 대통령 사진, 국회 사진, 악수 하는 사진 등 이외에 다른 사진은 찍을 일이 없다. 한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에 있을 적 검찰에 불려갔을 때 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는데 나는 새로운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뒷편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김 전 대통령의 뒷모습과 백 명의 기자들의 앞모습이 찍힌 사진을 찍어갔더니 데스크에서 왜 그의 얼굴이 없냐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의 분위기로, 사진 한 장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서 얼마나 집중 받는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당시는 그런 사진이 납득되지 않는 사회였다. 정형화된 사진만 찍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회의감이 들었다. 보도사진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을 찍더라도 사람의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큐멘터리 쪽으로 옮기게 됐다.

주로 자연, 사람에 관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왜 자연과 사람인가.

신문사를 2년 다니다가 오래 다닐 직장은 아닌 것 같아 86년도에 사표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유고슬라비아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과 같이 히말라야를 반년동안 여행했다. 가보니 자연이 엄청났다. 히말라야의 7-8000m의 산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이건 한번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평생 다니면서 기록해야 할 대상이구나'하고 그때부터 자연에 심취돼 히말라야를 다니게 됐다. 다니다보니 자연은 늘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보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에 취재할 거리가 더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람들로 포커스를 돌렸다. 그런데 사람을 찍다보니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 외부의 영향으로 웃도 바뀌고 풍속도 바뀌고... 그대로인 것이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더 이상 바뀌기 전에 지금의 모습을 기록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연보다는 없어져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 중심으로 찍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정도 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히말라야와 티벳 지역, 몽골의 오지 탐사 등 세계 각지의 소수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런 사진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소수문화권일수록 전통이 더 많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전통들이 현재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몇 년만 지나도 사라지고 기록에 담아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전통을 찾아 지금 와서 기록을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오지들조차 해가 지남에 따라 바뀌기에 또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고 자연스레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됐다. 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말이다.

오지를 다니며 다사다난했을 것 같다.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에는 뭐가 있나. 소수문화를 사진으로 담으며 특별한 인연을 만난 적은 없는지.

차마고도 촬영 당시, 엔징이라는 마을에서 소금을 싣고 가던 말이 나를 치고 지나가 카메라와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질벽 바로 아래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걸려서 목숨을 건진 기억이 있다.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거나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기록함으로 인해서 문화가 영원히 남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전혀 고통스러워 되지 못한다. 한편 현지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쌓이는 인연들도 많다. 언제 한번은 인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다가와 계속 귀찮게 굴었다. 상대를 안했더니 화를 내며 '남의 나라에와 마음대로 사진을 찍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때서야 내가 사과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엔 그 녀석과 친해졌고 내 가이드처럼 돼버려 다큐멘터리 작업할 때 대부분을 함께 다녔다. 인도에 들르면 항상 만나는 친구가 됐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 이처럼 우연히 만나 곳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기도 한다.

일반 사진작가와 달리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특히 기다림과 인내 등 여러 고충이 있을 것 같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주로 잡지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잡지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들에게 자신들이 찍어온 사진을 발표할 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고충이다. 예전엔 사진을 찍어오면 어딘가 발표할 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인터넷 공간 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누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비를 들여 작업해 무료로 발표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아 어렵다. 발표할 수 있는 잡지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남은 수단은 전시 또는 출판이다. 하지만 전시와 출판 또한 큰 돈이 드는 작업이기에 가난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하기 힘들다. 일반 사진수집가들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낚아서하고 예술 사진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 우리나라에는 특히 '마켓'조차 형성돼있지 않다. 이에 구독자를 만들자, 다큐멘터리 사진 전문갤러리를 조성해 전시의 장을 만들자는 등의 노력이 있지만 금전적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기 쉽지 않다.

어제까지 환상적인 사진전을 개최하셨다. 오로라 보레알리스(북극광) 사진전도 그렇고 보통 사진 작업을 하면 오랫동안 몰두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특히 히말라야 작업 땀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다.

사실 이번 오로라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해 3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인 반년에 걸쳐 찍은 것이다. 98년에 KBS와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시베리아 끝에 갔을 때 처음 오로라를 봤다. 하늘에 곱게 오로라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 찍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5년 간 아쉬움을 남기다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히말라야 작업은 지나고 보니 20년이지, 한창 다닐 때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생각도 못했다. 시초는 친구들과의 우연한 대화에서부터였다. 히말라야 여행에 도전해 스폰서를 받아보자해서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협찬해달라고 다짜고짜 쌍용자동차에 찾아가다. 마침 그 해 쌍용에서 코란도라는 지프차를 처음 만들어 험한 지대에서 시험해보려던 차라 우리에게 지원을 해줬다. 대신 방송국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더 홍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KBS를 찾아갔더니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도 없고 마침을 립픽을 앞두고 한번 시도해보자해서 정말 우연히 히말라야에 가게 됐다. 그렇게 히말라야에 도달했고 그곳의 자연에 완전히 압도됐다. 20년을 다녔지만 히말라야 문화권이 아주 광범위하고 골골이 다 오지라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다.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외국사진가들 중에는 평생 한 곳만

갖고 작업하는 분들도 있다. 오랜기간 촬영을 하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자기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점점 더 폭을 넓혀간다. 네셔널 지오그래픽 스티븐 맥커리의 아프리카소녀 사진이 대표적이다.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나 지금 찍은 사진이나 똑같다. 나도 비슷하다. 한 가지를 오래 찍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안하고 지역이면 지역, 가령 내가 많이 다니는 티벳, 아프리카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찍으려고 노력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직은 의욕이 넘쳐 한참 일에 빠져있는 사진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직은 전시나 출판, 정리를 하기 보다는 빨리 찍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보게 된 문화들이 시시각각으로 사라져가는 데 굉장히 초조함을 느낀다. '어서 가서 찍어야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한참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진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느라 사진집을 낼 틈이 없다. 최근 3년은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번 해가 정전 6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 관련 사진집을 엮을 예정이다. 전시도 자주 못해 앞으로는 틈이 나면 자주 하려는 생각이다. 또 현재 아프리카 문화가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아프리카 쪽 문화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보다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눈을 반짝이는 박종우 사진작가. 그의 인생은 그가 찍어온 사진 그 자체였다.